

[H 갤러리]

FEBRUARY COLLECTION

3. 1. – 3. 3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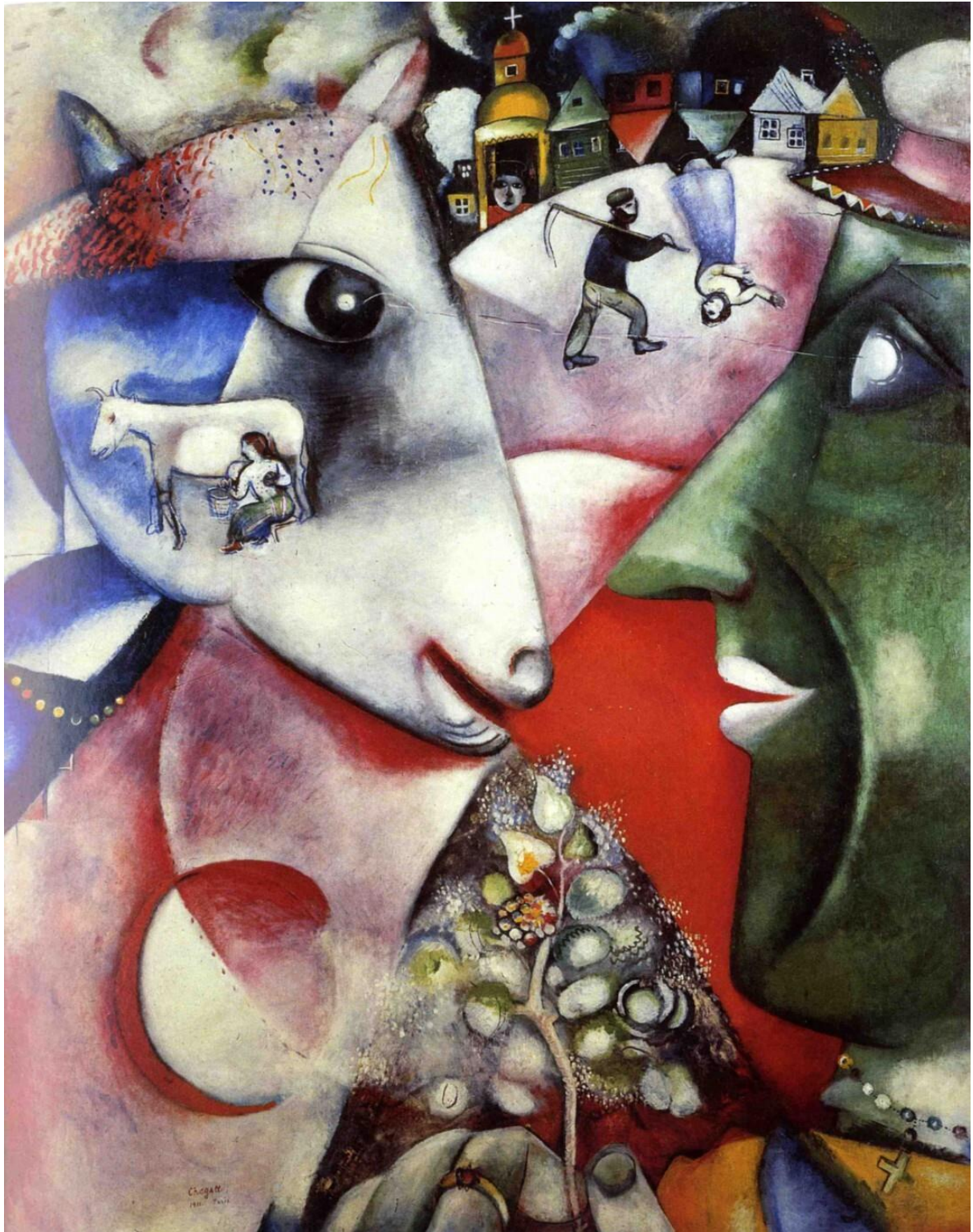
PHILIP. HAN.

Marc Chagall(1887 러시아 제국 - 1985, 프랑스)

3. 21. 월. 1911 년 작품 감상



Etude pour Moi et le village gouache et aquarelle 21,5 a 13,5 cm Bale, collection



Moi et le village huile sur toile 192, a 151,4 cm New York , Simon Guggenheim

1911년 여러 작품 중 단연 돋보이는 수작은 '마을과 나' 바로 이 그림이다. 샤갈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샤갈은 이 작품을 정점으로 그림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이다. 훗날 자신의 작품 소재는 '꿈과 기억'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작품에서 샤갈은 공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.

가난하고 답답한 파리 생활에서 샤갈의 유일한 낙은 고향과 벨라였다. 한데 이 두 위안거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샤갈은 입체파 기법을 통해 그 둘을 한 곳에 담는 방법을 떠올렸다. 마치 흰 도화지를 앞에 둔 아이가 이것저것을 그릴 때 언뜻 보면 도대체 무엇을 그린 지를 나는 모르지만, 아이는 그 각각의 그림에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소원이 있고 속상함이 있듯이 샤갈 작품도 그렇다.

그래서 샤갈 작품은 바깥쪽에서 안 쪽으로 회오리를 그리며 따라가면 샤갈의 마음의 소리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. '마을과 나' 이 작품 역시 중심 가장 바깥쪽에 고향 풍경이 있고, 사람이 있다. 회오리 중심에는 마주 선 두 사람, 자신과 벨라이다. 한데 간혹 공간 구성이 없는 샤갈 그림을 볼 수 있다. '마을과 나' 작품 전후 관계를 알 수 없어 짐작에 불과하지만 '꿈과 기억'이 아닌 현재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에는 공간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중시한 듯 보인다. 요컨대 감정을 공간에 가둘 수 없다는 점을 웅변하는 듯 보인다. 벨라를 오브제 삼은 작품 대부분이 그렇게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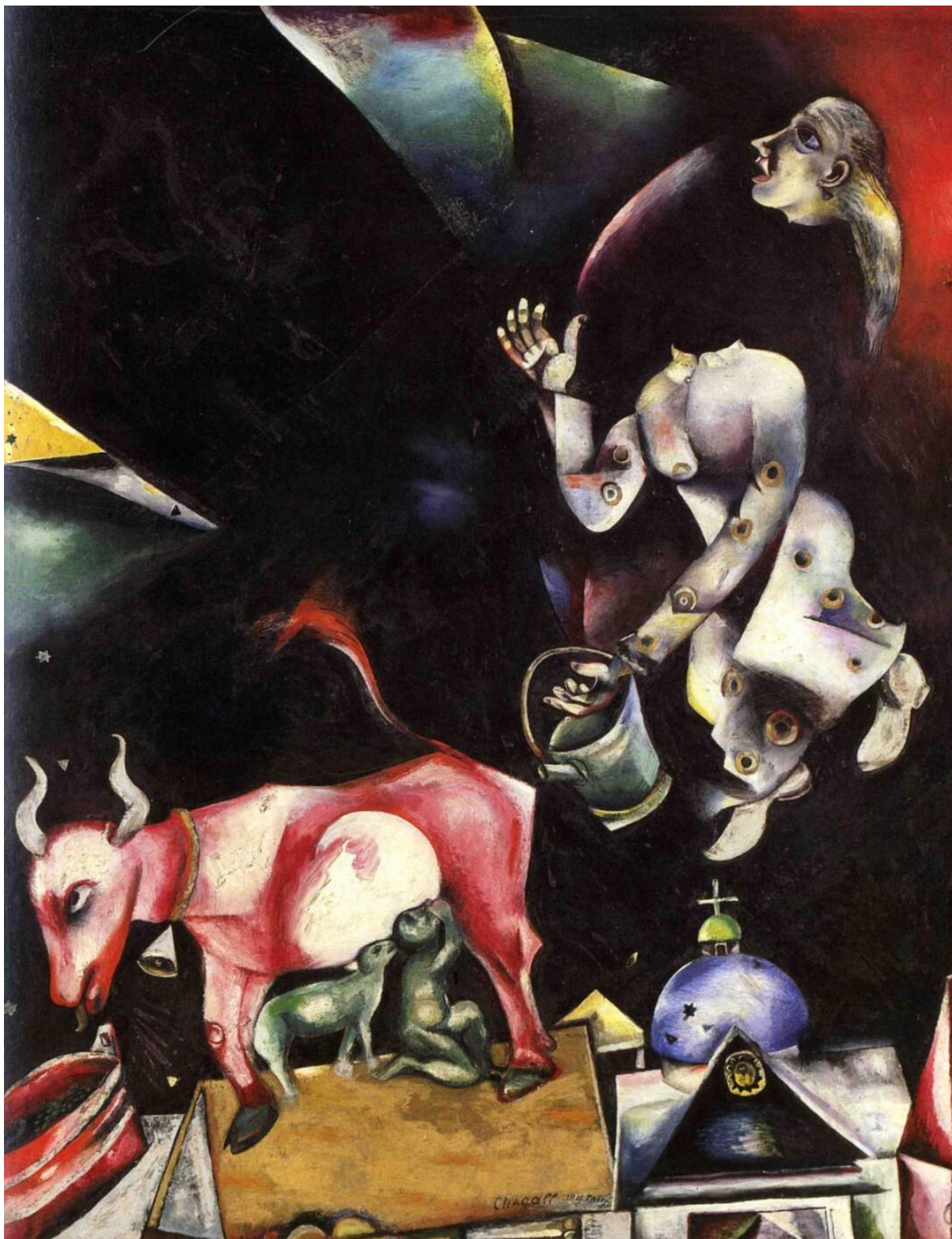


Le Poete aux oiseaux huile sur toile a sac 72.3 X.100 cm Minneapolis

샤갈의 친구 시인 블레즈 상드라르 초상화



Le Poete (trois heures et demie) huile sur toile 196 x 145 cm Philadelphie, museum of Art



la Russie, aux ânes et aux autres huile sur toile 157x122 cm Paris, musée national d'art moderne

Marc Chagall(1887 러시아 제국 – 1985, 프랑스)

3. 23. 수.



Le Pont de Passy et la Tour Eiffel.



The Green Donkey.Tate

1911년 작품으로 소개된 두 작품 공통점은 당나귀이다. 에펠탑 앞 당나귀는 수레를 끄는 듯 힘이 부치는가 샤갈은 어둑어둑 표현했다. 반면에 고향 비테프스크를 떠 올리는 당나귀는 푸르다. 두 내외가 애지중지 하는 양이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한 편을 표현한 듯싶다.

샤갈 작품에는 당나귀 또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. 해석도 분분하다. 자신의 모습을 은유 상징한 것이라고도 하고 내면의 자아라고도 한다. 적어도 작품을 얘기 물꼬를 트는 데 있어 중요한 오브제인 것은 사실이다. 파리라는 신식 도시 속 당나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. 가난한 샤갈 자신의 자화상 같았다. 하지만 붉은 기운이 캔버스를 장악하고 있고, 그 중심에 에펠탑이 있다. 얼핏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속내는 샤갈의 야망이 깃든 작품이다.

도시 곳곳을 누비고 라 튀슈로 돌아와 앓은 샤갈은 눈을 감는다. 야심을 숨길 수 없는 파리는 고단했다. 하지만 아스라이 떠 오르는 고향은 빈 주머니 샤갈에게 유일한 안식이었다. 그중에서 제일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은 주린 배를 채우는 식량이었다. 이 따듯한 기운을 그냥 둘 수 없는 샤갈은 야수파의 색감으로 한 점 망설임 없이 붓질을 한다. The Green Donkey 는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었으리.

도시는 붉고 고향은 녹색이다. 파리에서 샤갈은 수레를 끌어야 하지만 비테프스크에서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, 야수파는 샤갈에게 자아를 표현하는 색을 부여했다. 번쩍 눈이 떠졌다. 자기 그림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었다. 입체파에서 얻은 영감은 꿈과 기억을 담은 공간을 창조했고, 그 공간을 채우는 이야기를 칠할 색감은 야수파에게서 얻었다. 1911 년은 샤갈에게 그런 해였다. 껍질을 깨고 비로소 화가의 삶을 살아도 후회 없을 것이라는 각오가 선 그런 날 말이다.

Epilog



1911.village store

오렌지빛이 마을 곳곳에 따리 튼 듯하다. 밀을 싹둑 자른 농부가 보이고, 고구마일까 싶은 구황작물이 해처럼 떠 있다. 눈을 감은 샤갈 앞에 펼친 고향은 느지막한 가을녘이었다. 내 눈앞에는 희고 흰 목련과 분홍빛 벚꽃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데 말이다. 하지만 어느 오후 한때인 것만은 샤갈과 나는 함께 있다. 그림을 보며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좋다. 걸리 적 거리는 것 없이 감정이입이 빠르다. 자기 작품 정체성을 샤갈이 자각한 1911년 그림이어서 더욱 그렇다.

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내 사월은 샤갈처럼 정체성을 자각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. 무심코 떠 오른 생각이지만 꽤 괜찮은 나를 위한 봄의 제안이다. 정체성이 어찌고저찌고 논할 감양은 없어 샤갈처럼 여기저기 무진장 다녀 볼 참이다. 루브르 미술관 어딘가에 절망을 내동댕이 치고 뛰쳐나온 샤갈처럼 사월 봄 어느 날 내 눈앞에 생생하고 주제넘게 활기찬 좌절을 싹둑 잘라낼 것이다. 그래야 사월이고 봄 아니겠는가. 그러면 이번 가을 오렌지빛 가득한 들판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.

**매월 [H갤러리]를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신 작가님께 진심 감사 드립니다.
봄과 함께 하겠습니다.**